

유가폭락에 따른 알제리 경제 변신 노력과 우리의 대응 방안

조기창 관장
KOTRA 알제리무역관

■ 주요 내용

- 전체 수출의 98% 가량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 보유고 감소 및 재정악화로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.
- 이에 따라 긴축재정 및 대형관급공사 중단, 강력한 수입 규제와 함께, 석유 가스 산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.
- 한국제품의 경쟁력 하락과 알제리 수출환경 악화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 對알제리 수출은 전년대비 40%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간 기술협력과 현지 생산을 통한 시장접근이 요구됨.

KIEP **대한경제정책연구원**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시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 유가폭락 이후 알제리 경제 현황

☒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극심한 타격

- 2014년 대비, 거의 반토막까지 하락한 국제유가로 인해 석유·가스 산업이 전체 수출의 98%에 이르는 알제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.
 - 2016년 연말 알제리 외환보유고는 2014년 말, 1799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든 117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¹⁾
 - 국가재정수입의 2/3가 석유가스 수출에서 발생되고 있는 관계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지연, 중단, 취소되고 있으며 엄격한 외환통제와 함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.
- 경상수지도 2014년 3.3억 달러 흑자에서 2015년에는 172.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으며 201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176.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GDP 대비 재정적자 역시, 2014년 7.2%에서 2015년에는 10.14%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 말에는 16.2% 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

알제리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추이

(단위: %)

(단위: %)



출처 : EIU 2016.6

1) EIU 알제리 외환보유고 전망 : 2016년 1,171억 달러, 2017년 994억 달러.

☒ 저유가 상황 지속된다면 장기침체로 이어질 듯

-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공투자 위축으로 인해 알제리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.7%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도 2019년까지 3%대를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.
- 최근 IMF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알제리는 배럴당 유가가 87.6달러로 회복되어야 정부 예산 균형이 이루어져 종전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.
- 알제리 경제사회이사회 (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sel)는 석유에 대한 국제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알제리 경제도 극적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따라서 알제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다변화, 수입 감축을 목표로 즉각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조언함.

2 유가폭락에 따른 알제리 경제정책의 변화

☒ 긴축재정 및 대형관급공사 중단

- 정부 및 공기업 통폐합을 통한 인건비 절감
 - 고위공무원 퇴직 권장 및 정부기관, 공기업 합병 또는 폐지 추진
- GDP의 1/5를 차지하는 각종 정부 지출보조금 규모 축소
 - 리터당 경유가격을 10% 가량 인상하였으며 시간당 전기소비가 125KW를 초과하는 경우, 부가세율을 종전 7%에서 17%로 조정하고 3G 인터넷 사용 관련 부가세 인상과 통신 사업자에게 기존 두 배의 세금 부과
 - 밀가루, 우유, 설탕, 식용유 등 기초식품에 대한 국가보조금 축소
- 불요불급한 대형관급공사 발주 취소, 중단 및 연기
 - 우리나라가 기수주했던 대형 공공프로젝트 (발전소, 신도시 부지 조성공사 등) 완공까지 연기가 불가피함과 함께 공사비 지급 지연 속출
 - 반면 중국은 저임금을 무기로 주택 및 건물 건설시장 싹쓸이 중 (2천여 명의 중국 건설노동자 현장 투입)

☒ 국채 발행 및 외자도입 적극 검토

- 그동안 알제리는 오랜 식민지배와 90년대 내란을 겪으면서 외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옴.²⁾
 - 각종 관급공사 발주 시에도 민간자본이나 해외자본이 아닌 100% 국가예산을 투입해 옴.
- 최근 예산적자 확대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대형 관급공사 발주 시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고 국채 발행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.

☒ 더욱 엄격해진 외환통제 및 수입규제 강화

- 당초부터 알제리는 수입 시, T/T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환송금, 반출에도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.
 -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외환송금은 불가능하며 해외여행 시에만 1인당 7천유로 상당의 외환을 반출할 수 있음.
- 모든 L/C, D/A, D/P거래도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함.
 - 금년 3월부터 모든 L/C 개설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알제리은행의 사전사후 검토를 통해 개설 승인 또는 수입대금 송금이 가능함.
 - D/P 거래 시에도 수입자는 세관으로부터 정식 수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시해야 송금이 가능하므로 여타국에 비해 송금까지 최대 3개월이 더 소요됨.
-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수입허가제 실시
 -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, 식품류, 시멘트 등 주요제품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음.
 - 특히, 자동차 수입라이선스 발급 건수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완성차 수입 쿼터량을 2015년 35만대에서 2016년에 152,000대로 대폭 축소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83,000대로 추가 감축함.
-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
 - L/C 개설 및 송금지연과 함께 엄격한 통관제도, 낙후된 행정시스템 및 관료주의, 각종 인허가서류 및 알제리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요구 등으로 수입 장벽을 강화하고 있음.

2) 최근 10년간 유지된 고유가 덕분과 외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알제리의 대외부채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을 유지해옴. 2015년 외채 규모는 GDP의 3% 수준인 50억 달러를 밑돌고 있음.

산업다변화와 국산품 장려책 도입

- 석유 가스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, 관광업 등 산업다변화 강력 드라이브
 - 저유가로 인한 경제 타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다변화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.
-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강화
 -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자국제조업 활성화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기업의 합작투자, 기술 이전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.
 - 현지 투자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, 공공입찰 등 에서 다양한 혜택 부여
- 국산품 활용 캠페인 및 각종 장려책 도입
 - 애국심에 호소하는 국산품 활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산품에 대해서 할부 구입을 허가하는 등 다양한 장려책을 도입하고 있음. 특히 알제리 국내 조립승용차의 경우에만 할부구입을 허용하고 외국완성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쿼터제 도입과 함께 할부 구입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국산 조립차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음.

외국기업 진출성공 사례



- ◆ 프랑스 르노자동차, 승용차 분야 현지 1호 진출
 - 2014년 11월부터 연 25,000대 생산 가능한 자동차 조립공장 가동 (모델명 : SYMBOL)
 - 현재 40,0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조만간 두 번째 모델 출시 예정

【알제리 르노의 최초 모델】 - 알제리 최대 승용차 공급사로 등극

◆ 메르세데스벤츠는 관용차, 특장차 분야, 현지 생산공장 건설로 시장 선점

3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

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

- 우리나라 對알제리 수출급감
 - 한국제품의 경쟁력과 알제리 수출환경 악화에 따라 우리나라 對알제리 수출은 2015년, 전년대비 40%가 급감한 8억5천만 달러를 기록, 이러한 부진은 2016년에도 지속되어 4월말 현재, 전년 동기 대비 33.8%나 감소함.

- 특히 2016년 4월말 현재, 건설 중장비는 전년 동기 대비 61.6%나 감소한 2,700만 달러에 그쳤으며 승용차는 3월부터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그나마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진행 중인 다수의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갈 전력기자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. (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임.)
- 우리나라 건설사 미수금 비상
 - 유가하락에 의한 알제리 경제침체에 따라 2016년 들어 현지 수주 건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회수 심각
 - 일부 진출 건설사들 출구전략 준비 중 (현지 진출 국내건설 K사 철수 예정)
-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, 당분간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.
 - 일부 진출 건설사들 출구전략 준비 중 (현지 진출 국내건설 K사 철수 예정)

우리의 대응방안

- 현지 시장 여건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
 -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, 자본재 중심으로 수출 집중
 - 알제리는 제조업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류,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하지 않음.
 -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해 기술협력, 원부자재 공급협력
 - 수입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, 판매하는 우회루트 개발
 - 현대자동차도 6월부터 상용차 현지조립공장을 통해 연간 4,000대 가량 공급
 - 차별화된 기술 및 개발노하우 협력가능 프로젝트 개발
 -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프로젝트, 경영노하우 위주 수출
 - 한국도로공사 (고속도로), 수자원공사 (댐관리) 운영 노하우 수출
 - 알제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한 시장 접근
 - 현지 경제사정 악화로 수출 및 공사대금 미회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, 보수적인 시장 접근 * 바이어 신용조사, 수출보험가입 필수, 편법 수출 지양
 - 한류 바람 확산, CSR사업 등을 통한 對한국 이미지 강화 **EMERiCs**

출처
EIU